



ETF부터 액티브ETF까지

1. 2021년 ETF 시장 크게 도약

- 2021년은 액티브 ETF와 해외ETF가 시장의 성장을 이끌면서, ETF 시장은 작년말 52.0조원에서 2021년 11월 69.7조원으로 순자산 크게 증가
- 2020년말 6.1조원이었던 해외 ETF는 2021년 11월 17.3조원으로 증가
- 기존 시장 규모가 컼던 시장대표와 레버리지/인버스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

2. ETF의 액티브 유형은 빠르게 성장

- 한국거래소의 ETF 분류 중 액티브는 혁신기술테마, BBIG, 퓨처모빌리티, 메타버스, ESG,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커머스, 탄소중립 등 다양한 ETF 포함
- 해외에서도 액티브ETF에 대한 관심 이어짐

3. 액티브ETF는 메타버스, ESG, 모빌리티 등 다양성 확대

- 액티브ETF는 메타버스, ESG,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등 장기적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도 중장기 투자 대안으로 액티브 ETF 선택
- 규제 완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액티브ETF의 다양성 확대로 액티브ETF 시장 확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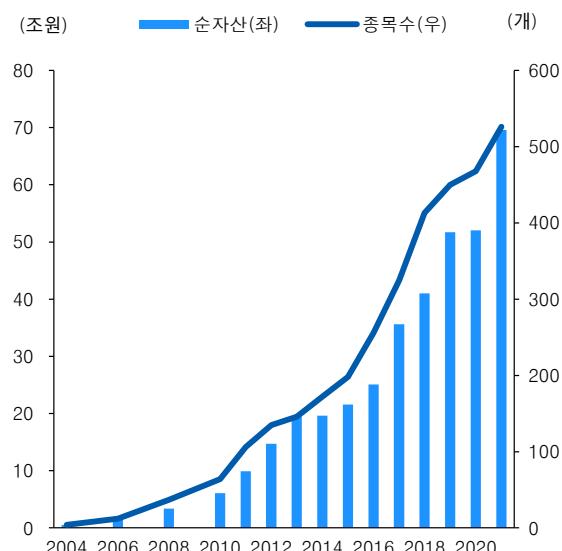
1. 2021년 ETF 시장 크게 도약

우리나라 ETF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오고 있으며, 다양성도 확대되어왔다. 특히 2021년은 액티브 ETF와 해외ETF가 시장의 성장을 이끌면서 작년 말 52.0조원에서 2021년 11월 69.7조원으로 순자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말 6.1조원이었던 해외 ETF는 2021년 11월 17.3조원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해외주식ETF는 4.2조원에서 15.1조원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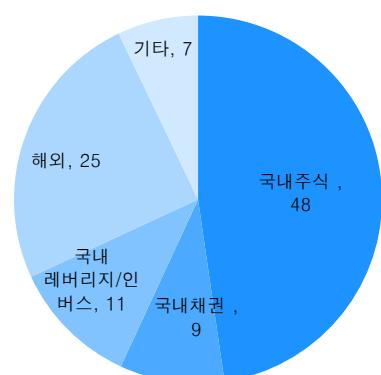
해외주식ETF는 2차전지와 전기차, 미국주식 등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운용규모가 커졌다. 해외주식 ETF 중에서 순자산이 1조원을 넘는 것은 '미래에셋TIGER차이나 전기차SOLACTIVE(2.2조원)', '미래에셋TIGER나스닥100(1.7조원)',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 & 배터리(1.6조원)', '미래에셋TIGER미국테크TOP10INDXX(1.1조원)', '미래에셋TIGER미국 S&P500(1.1조원)' 등이 있다. 해외주식펀드 중 1조 펀드 8개 중에서 ETF가 5개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매우 선호했던 국내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연초 이후 7.6조원에서 7.8조원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국내주식의 시장대표 관련 ETF는 21.9조원에서 18.1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챠트1] 2021년 ETF 시장은 크게 도약



[챠트2] ETF는 국내주식 48%, 해외 25%



자료: KRX,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KRX,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2021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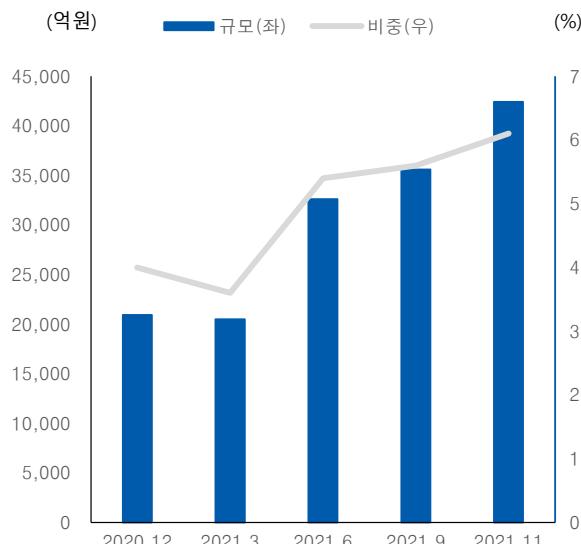
2. ETF의 액티브 유형은 빠르게 성장

한국거래소의 ETF 분류는 국내ETF는 국내주식, 채권, 부동산, 통화, 혼합자산, 기타, 레버리지/인버스, 액티브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액티브는 혁신기술테마, BBIG, 퓨처모빌리티, 메타버스, ESG,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커머스, 탄소중립 등 다양한 ETF가 포함되어 있다. 국내 액티브ETF는 코스피, 섹터, 전략 등 다양한 유형에서 운용이 되고 있다. 해외의 액티브ETF 유형은 글로벌 BBIG, 글로벌 플랫폼 등으로 운용된다. 작년 9월부터 출시된 주식액티브ETF보다는 범위가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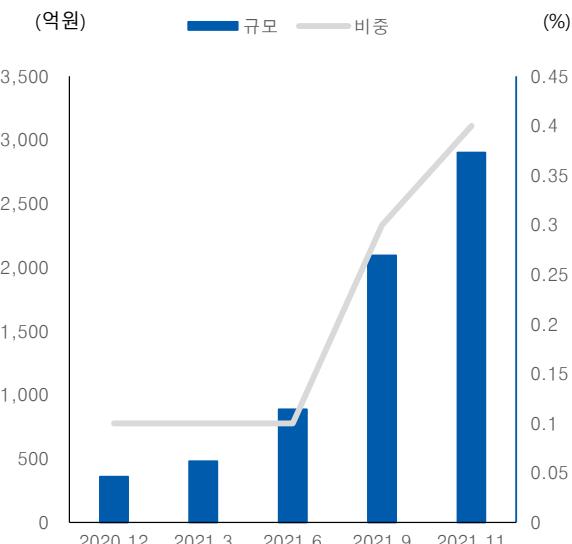
작년부터 해외에서도 테마와 액티브는 ETF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액티브ETF는 ARK innovation ETF이다. ARK innovation ETF는 2020년 152.5%의 놀라운 성과를 시현했으나, 2021년은 -13.4%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ARK innovation ETF는 투자자들에게 액티브ETF에 대한 인식을 대중화시켰고, 이에 따라 액티브ETF 시장이 확대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섹터와 테마에 전략을 맞춘 액티브 ETF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면서 액티브ETF 시장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차트3] 국내주식 액티브 ETF는 올해 빠르게 성장



[차트4] 해외주식 액티브ETF는 올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성장



자료: KRX,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KRX,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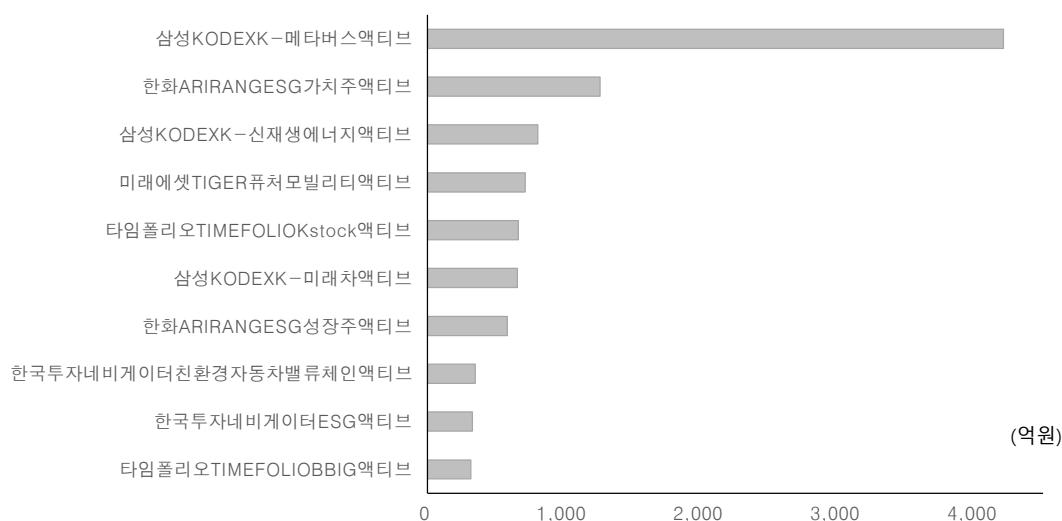
3. 액티브ETF는 메타버스, ESG, 모빌리티 등 다양성 확대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를 70% 추종하고 30% 범위에서 매니저의 재량으로 추가 수익을 추구한다. 작년 7월 액티브주식 ETF 상장이 시작되었고, 올해 5월부터 액티브주식 ETF의 상장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액티브 ETF는 메타버스, ESG,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등 장기적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도 중장기 투자 대안으로 액티브 ETF를 선택하고 있다. 액티브 ETF로 투자 자금이 모이면서, 기존에 ETF가 없었던 운용사들도 액티브 ETF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운용사 고유의 노하우나 장점 등을 액티브 ETF로 차별화시키면서, 액티브 ETF 시장은 다양화된 투자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국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액티브 ETF와 기초 지수의 상관계수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액티브 ETF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포트포리오의 불투명 또는 반투명 규정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액티브 ETF에 대한 운용사의 참여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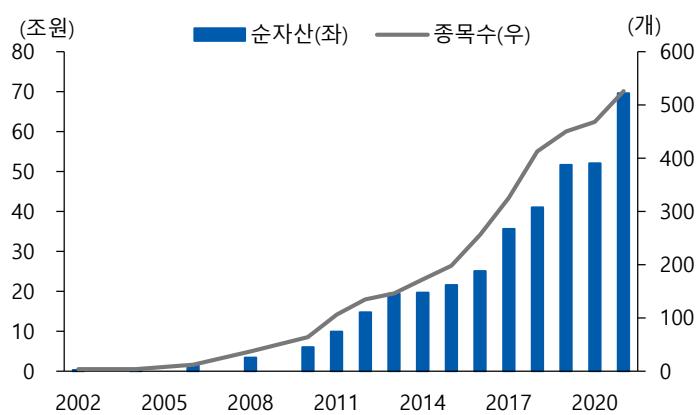
[차트5] 국내주식 액티브 ETF 순자산 규모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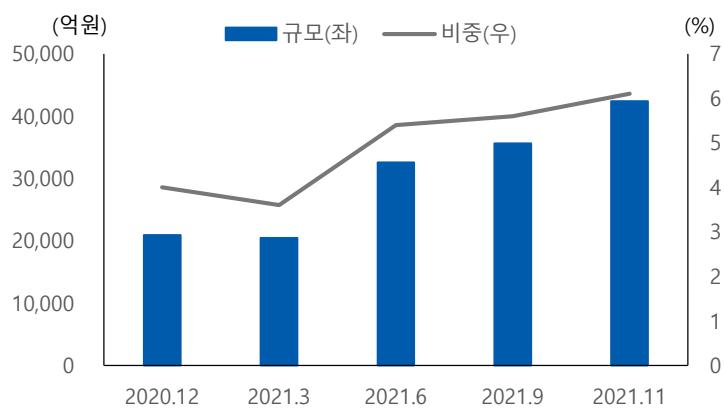
Key Chart

2021년 ETF 시장은 크게 도약.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주식 액티브 ETF는 올해 빠르게 성장.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주식 액티브 ETF 순자산 규모.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